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http://www.msip.go.kr
보도일시	2015. 4. 2(목) 조간(온라인 4. 1. 12:00)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5. 4. 1.(수) 09:00	담당부서 인터넷제도혁신과
담당과장	송재성(02-2110-2830)	담당자 오정택 사무관(2832)

미래부, 「민간분야 액티브엑스(ActiveX) 이용 개선방안」 발표
- 2017년까지 민간분야 주요 100대 웹사이트 중 90%를
액티브엑스 프리(ActiveX-free) 사이트로 전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4월 1일 박근혜 정부 규제 개혁과제 및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국내 민간 웹사이트의 비표준 환경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간분야 액티브엑스(이하, 'ActiveX' 이용 개선방안」(상세자료: 붙임)을 발표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은 **간편결제 도입으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ActiveX 이용이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러한 효과를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분야로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상거래 이용 시 공인인증서 및 ActiveX 때문에 외국인이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고 국내 인터넷 시장 발전을 저해” 하므로 **ActiveX 이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 정부는 민·관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14.9.22) 하여 전자상거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결집**하여 왔다.
- * 미래부(TF팀장 : 미래부 2차관) · 금융위 · 산업부 · 문체부 · 여가부 · 공정위 · 방통위 등 10개 부처, 관련 업계(쇼핑몰, 카드, PG) · 공공기관 등 25명으로 구성

- 1 -

- 그러나, 업계에서는 ActiveX 개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 도입비용과 관련 기술 부재 등으로 **실제적인 ActiveX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미래부는 민간 주요 100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ActiveX 이용을 개선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첫째, 민간 주요 100대 웹사이트 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ActiveX를 개선할 **웹표준 활용 솔루션 도입을 지원**한다.(17년까지 최대 420개)
- 100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웹표준 활용 솔루션 도입 시 도입비용의 50%(솔루션당 2천만원, 사이트 당 1억원 상한)까지 지원한다.
- 올해는 솔루션이 개발된 보안·결제·인증분야(전체 ActiveX의 66% 차지) 도입을 우선 지원(총 13억원)하고, 파일처리·전자문서·멀티미디어 등 타 분야는 올해 개발된 솔루션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지원한다.

< 연도별 웹표준 활용 솔루션 도입 지원계획 >

'15년	'16년	'17년	합계
65·130개 솔루션(13억)	70·140개 솔루션(14억)	75·150개 솔루션(15억)	210·420개 솔루션(42억)

- 둘째, ActiveX를 개선할 **웹표준 활용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 우선 파일처리·전자문서·멀티미디어 분야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추가기능 개발이 필요한 보안/결제/인증 ActiveX 및 피시(PC) 제어 ActiveX**에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17년까지 총48종)
- * 바로그기 설치, 장치관리, 브라우저 창 최상단 배치 기능, 시스템 정보 확인 등
- '17년까지 총 48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개발사당 개발비의 50%이내에서 최대 1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 2 -

< 연도별 웹표준 활용기술 개발계획 >

'15년	'16년	'17년	합계
8종 (6억)	16종 (12억)	24종 (18억)	총 48종 (36억)

□ 셋째, 인터넷 분야별로 대표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웹표준(HTML5) 전환을 지원**한다.

- 100대 웹사이트 내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웹 표준 전환비용을 지원(중소기업 3.5억, 중견기업 1.5억원 한도)하여 민간사이트들의 변화를 유도할 있는 ActiveX 없는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구현할 계획이다.

< 연도별 웹표준 전환지원 계획 >

'15년	'16년	'17년	합계
10개 사이트 (9억)	10개 사이트 (9억)	10개 사이트 (9억)	30개 사이트 (27억)

□ 넷째, 웹표준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웹표준 사이트 인증제'를 도입하고, '웹표준 전문인력 교육과정'('15년 500명), '온라인 기술지원센터' 및 '맞춤형 컨설팅' 운영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2017년까지 **국내 민간 주요 100대 웹사이트 중 90%가 ActiveX 없는 사이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 이용자는 ActiveX 이용에 따른 불편이 없어지고, 여러 브라우저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의 ActiveX는 행정자치부가 4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그간 ActiveX는 설치과정에서 피시(PC) **재부팅 현상, 프로그램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타 브라우저(크롬, 파이어폭스 등) 및 모바일에서 **정상적인 웹서비스 이용이 안 되는 이용자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주요 브라우저 제공사도 이용자 불편, 보안 문제 등의 사유로 ActiveX 등 플러그인 기술 지원을 축소할 예정이며, 기존 ActiveX를 개선할 수 있는 웹표준(HTML5)^{**}이 확정('14.10)되는 등 업계와 민간에서도 비표준 웹기술 개선에 대한 환경변화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다.

* MS 윈도우8 이후 Modern 모드에서 ActiveX 미지원 (구글) 구형 플러그인(PAPI) 지원 중단('15.9월)
 ** HTML5는 진화된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존 HTML이 제공하지 못하던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ActiveX 없이 제공할 수 있음

□ 미래부 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전자상거래 ActiveX 개선 성과 사례를 다른 분야에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노력과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유도를 통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 : 민간분야 ActiveX 이용 개선방안

민간분야 ActiveX 이용 개선방안

1 추진 배경

□ ActiveX 이용현황

-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ActiveX를 9배* 이상 많이 이용하며 ActiveX의 80%를 외부 솔루션사를 통해 구매
 - * 국·내외 100대 웹사이트 ActiveX 사용 수 : (국내)1,644개, (해외)178개
 - ** 개발유형 : (국내)자사개발 20%, **솔루션 구매 80%** / (해외)자사개발 46%, 솔루션 구매 54%
- 국내는 전자상거래 관련 보안·인증·결제 기능(전체의 66%)에 ActiveX를 주로 이용하며, 해외는 멀티미디어 기능(74.2%) 구현에 ActiveX를 주로 이용
 - 보안·인증·결제 ActiveX는 1개의 솔루션이 평균 13개 사이트에서 중복 이용

□ 문제점 및 향후전망

-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 공공서비스 등 웹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에 대한 사용자 요구가 높아 ActiveX 이용이 보편화된 상황
 - IE 의존도 심화로 다양한 OS·브라우저·기기로의 유연한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용자들의 무의식적인 설치경향을 악용한 해킹루트로 악용
 - ※ MS·구글 등 주요 브라우저사도 보안성을 이유로 ActiveX 등 플러그인 지원을 축소할 예정
- ActiveX 이용은 점차 축소되고 웹표준(HTML5)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에서도 ActiveX 이용 개선이 시급
 - ※ 유튜브, 모든 브라우저에서 영상 재생 시 HTML5를 기본으로 사용('15.1월)

< 정책적 고려사항 >

◇ 업계에서는 ActiveX 개선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웹표준 활용 솔루션 도입비용 및 기술 부재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2 개선 방안

< 기본방향 >

▶ 시장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선 추진

솔루션 도입지원 '17년까지 420개	+ 웹표준기술 개발 '17년까지 48종	+ 웹표준 전환지원 '17년까지 30개 사이트	+ 웹표준 이용환경 조성 웹표준 인증제, 기술지원
-------------------------	--------------------------	------------------------------	--------------------------------

- ① 이미 웹표준 활용 솔루션이 출시된 보안·인증·결제 분야의 ActiveX는 솔루션 도입지원을 통해 솔루션 보급을 촉진
- ② 멀티미디어·파일처리·전자문서 등 타 분야의 ActiveX 웹표준 활용기술 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ActiveX 개선 추진
- ③ 시장에서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삼을만한 ActiveX-Free 사이트 구현을 위해서 중소·중견 사이트를 선정하여 웹표준(HTML5) 전환을 지원
- ④ 웹표준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웹표준사이트 인증제' 도입, '전문 개발인력 교육과정' 운영 및 '온라인 기술지원센터'·'무료 컨설팅' 등 기술지원 실시

□ 웹표준 활용 솔루션 도입 지원

- 민간 주요 100대 웹사이트 내(총 1,644개 ActiveX 사용)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용환경 개선 미증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웹표준 활용 솔루션 도입 지원 ('17년까지 최대 420개)
 - '15년은 솔루션이 개발된 보안·결제·인증분야(전체 ActiveX의 66% 차지) 도입을 우선 지원(13억원, 최대 130개)하여 신속한 확산 추진
 - ※ 보안/결제/인증분야 ActiveX 83종(1,084개) 중 23종(422개)은 웹표준 활용 솔루션이 이미 상용화
 - 멀티미디어 등 타 분야는 올해 개발된 솔루션을 기반으로 '16년 이후 지원 추진

< 연도별 웹표준 활용 솔루션 도입 지원 계획 >

'15년	'16년	'17년	합계
65~130개 솔루션(13억)	70~140개 솔루션(14억)	75~150개 솔루션(15억)	210~420개 솔루션(42억)

□ 웹표준 활용기술 개발·보급

- 웹표준으로 구현 가능하나 상용 솔루션이 없는 파일처리·전자문서·멀티미디어분야 솔루션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지원('17년까지 24종)
 - 추가기능 개발이 필요한 보안·결제·인증 분야('17년까지 12종) 및 PC 제어·기타 분야('17년까지 12종)에도 기술개발 지원

< 연도별 웹표준 활용기술 개발계획 >

'15년	'16년	'17년	합계
8종 (6억)	16종 (12억)	24종 (18억)	총 48종 (36억)

□ 웹표준 전환지원

- 인터넷 분야별 10개 중소·중견기업 웹사이트(15년)를 선정하여 ActiveX 없는 사이트로 전환을 지원, 모범사례로 도출하여 소 영역으로 확산
 - ① 전환가능성, ②업종 내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17년까지 총 30개 사이트를 HTML5 기반으로 전환(매년 10개씩)

< 공공분야 웹표준 전환 시범사업 실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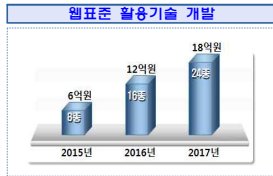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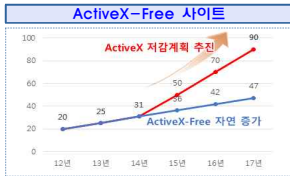
- ▶ 이용량이 많으면서 ActiveX 위주로 구현된 공공 사이트 2-3개를 행정자치부와 연내 웹표준으로 전환하여 공공분야의 선도사례로 홍보

□ 웹표준 이용환경 조성

- 민간·공공의 자율적인 웹표준 준수 및 ActiveX 개선 촉진을 위한 '웹표준 사이트 인증제' 시행(15년 상반기)
- 웹표준 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15년 500명) 및 온라인 HTML5 기술지원 센터, '맞춤형 무료 컨설팅' 등 기술지원 실시

3 기대 효과

- ActiveX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HTML5 도입을 확산하여 선진 인터넷 이용환경으로 대전환하는 원년이 되도록 함
 - ▶ 100대 웹사이트 중 ActiveX-Free 비율 : '17년까지 90%(31개→90개) 달성
 - ▶ 웹표준 활용기술 개발 : '17년까지 48종 개발



참고 HTML5 개념 및 장점

□ HTML5 개념 및 특징

- 차세대 웹문서 표준 ('14년 확정 예정)으로서, 텍스트와 하이퍼링크만 표시하던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이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까지 표현·제공하도록 진화한 "웹 프로그래밍 언어"
- 오디오·비디오·그래픽 처리, 위치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웹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향상
- ※ HTML :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웹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 HTML5 주요 기능 >

	Video & Audio : 비디오 및 오디오 기능을 자체적으로 지원
	3D, Graphics & Effects : 다양한 2차원 및 3차원 그래픽 기능을 지원
	Offline & Storage : 네트워크 미지원 환경에서도 웹 이용을 가능하게 함
	Device Access : 카메라, 동작센서 등의 H/W 기능을 웹에서 직접적으로 제어
	Web Socket : 웹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측과 직접적인 양방향 통신 가능
	Geo-Location : GPS없이도 단말기의 지리적인 위치 정보를 제공
	Styling Effects : 글씨체, 색상, 배경 등 다양한 스타일 및 이펙트 기능 제공
	Semantics : 웹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자 의도에 맞는 맞춤형 검색 제공

□ HTML5가 미치는 영향

- (표준 웹 환경의 확산) 현재, 멀티미디어를 비롯한 확장 기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표준 인터넷 웹 환경 (ActiveX, Flash, 실버라이트 등 별도 프로그램 설치)이 점차 해소될 전망
- (개방형 생태계로의 변화) 개방된 인터넷 웹상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 이를 누구나 브라우저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애플 (iOS) 및

구글 (안드로이드) 등 OS 플랫폼에 대한 의존이 감소

- **(사용자 선택권의 강화 = One Source Multi Use)** 사용자의 경우, 인터넷에만 접속하면 스마트 폰·태블릿 PC·PC 등 기기는 물론, 애플이나 구글 등 벤더에 상관없이 S/W나 콘텐츠 등을 이용 가능
 - ※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한 앱은 구글 안드로이드 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HTML5 환경에선 이러한 소비자 선택상의 제약이 완화됨

□ **해외 주요 HTML5 적용사례**

- **(YouTube*, Netflix**, Hulu, Vimeo)** 미국의 대표적 동영상 제공 기업들로, HTML5 비디오 재생 기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 * 14.1월부터 주요 웹 브라우저(크롬 IE 등)에서 HTML5 비디오 재생을 기본기능으로 제공
 - ** 13.4월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을 MS사의 실버라이트에서 HTML5 기반으로 변경 결정
 - ※ www.youtube.com/html5, www.netflix.com, www.vimeo.com, www.hulu.com
- **(Financial Times, New York Times)** 영국, 미국의 대표적 언론사로, HTML5로 서비스를 제공(FT 11년, NYT 12년)
 - ※ apps.ft.com/ftwebapp, app.nytimes.com
- **(Amazon Kindle)** 아마존의 HTML5 기반의 전자책(북) 서비스(11년)이며, 더불어 아마존 웹 앱 스토어에서도 HTML5 기반 웹 앱 유통 개시(13년)
 - ※ read.amazon.com
- **(GoogleDocs, Gmail, SlideShare)** 대표적인 문서 작업·공유 및 메일서비스로 HTML5 기반으로 제공
 - ※ docs.google.com, www.gmail.com, www.slideshare.net/html5
- **(앵그리버드, 컷더로프, 팜빌 익스프레스)** HTML5를 활용한 대표적 게임
 - ※ chrome.angrybirds.com, www.cuttherope.ie, m.farmville.com/fx